



2024년 8월 18일(제1207호) 연중 제2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몸과 마음에 오래 머물러야 할 성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임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탈출 때 먹었던 만나를 아득히 뛰어넘는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살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편에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식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은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단순히 먹는 행위인 ‘에스티오’가 아닌, 소리를 내어 씹어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트로고’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살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씹어 먹기를 바라셨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허겁지겁

먹으면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을뿐더러 소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오래 씹으면 음식에 들어간 다양한 재료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몸에도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살을 소리를 내어 씹어 먹으며, 당신의 살에 가득 찬 사랑과 자비를 느끼길 바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소화시킨 예수님의 살이 우리 역시도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이끄는 소중한 삶과 신앙의 양분이 되길 바라시기에 아주 직설적으로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요?

미사에 참여하며 받아 모신 성체를 몸과 마음에 오래 간직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 하시길 바랍니다.



분양주(베드로) 신부
명성대(공군 제8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잠언 9,1-6

회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 시

에페 5,15-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제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여섯 번째 시집

그는 우리와 작별하면서 자기가 제주도 고향에 돌아가면 먼저 자기 가족에게 천주교를 가르쳐 입교시킨 후 저한테로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오늘까지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또 파선이 되어 죽지나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전교하다가 관헌에 잡혀 죽지나 않았는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조선말로 제주도라고 하는 섬은 옛날에는 독립되어 있다가 후에 조선에 합병되었는데, 상당히 크고 비옥한 섬입니다. 각 관장이 다스리는 행정 구역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는 저의 계산으로 약 4만 명이며, 주민들 성품이 사납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파견된 관원들이나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사꾼들 외에는 누구도 제주도 상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것도 남자들은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하고, 여인들에게는 엄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섬에 교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선교사 사제가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을 은혜를 주신다면, 선교사 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신부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어제 쓴 서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도 그 서한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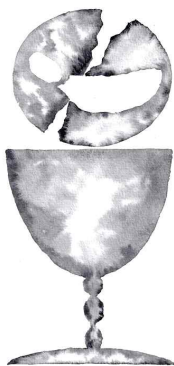
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부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봉 헌

보아라!
하느님의 어린양을.

살아라!
그 소박한 삶을.

보아라!
그 소박한 삶을.

지켜라!
품었던 그 꿈을.

따라라!
하느님의 어린양을.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세레지 요한 제단화



한스 멤링, 1479년경 제작
오크페닐 위 유희, 172x79cm

본 패널은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섬에서 계시를 받으며 요한 묵시록을 집필하는 것이 주제이다.

그럼 오른쪽에 맨발의 사도 요한이 바위에 앉아 있고, 왼편의 열린 하늘을 통해 ‘천상 예배’를 목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요한 묵시록 4장의 내용이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허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라. 이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나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상량끼 시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이좌 허니기 놓여 있고 그 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이좌 틀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좌 틀레에는 또 다른 이좌 스투네 개기 있는데, 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투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좌에서는 빈개와 요란한 소리와 친둥이 터져 나웠습니다. 그리고 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느님의 일곱 영이 십니다. - 중략 - 스투네 원로는 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앞드러, 영원무궁토록 살이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지회의 허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민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리 민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0주일: 동해(육군) 원신회 신부

◆ 교구장 동정

- 화성대(제10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18일(주일)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8월 22일(목) 10:30, CBCK

- 원목자 기초교육과정 파견미사
 때·곳: 8월 24일(토) 14:00, 성의회관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